

# 왕권과 신권 대립 속 조선을 이끌었던 신하들의 이야기



정약용 초상

“태종의 남자로서 하륜이 보여준 대표적인 능력은 ‘연리실기술’의 기록에 전해 온다. 태종이 왕이 된 후, 아들에게 불만을 가진 태조는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갔고, 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번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태조는 오히려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함흥차사’ 고사의 유래다. 그런데 하륜은 태조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을 의식하여 장막의 기둥을 크게 만들자고 했고, 놀랍게도 태조가 태종을 향해 쓴 화살은 하륜이 미리 대비한 나무 기둥에 박혔다. 태종을 구한 하륜의 기사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본문 중에서)

‘참모’라는 말에서는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훌륭한 지도자 곁에는 늘 그에 못잖은 참모가 있었다. 고대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참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최근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문재인인 남자’로 불리는 그는 문 대통령에게 2012년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선대본부 조직본부장을 역임했다. 자리가 말해주듯 그가 핵심 참모임에는 분명하다.

역사를 보건대, 조선시대 왕들은 모두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 참모들을 적절히 활용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 ‘왕’과 함께 ‘참모’는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프리즘 같은 것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참모로 산다는 것

신병주 지음

왕권과 신권의 대립 속에서 조선을 이끌었던 신하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가 펴낸 ‘참모로 산다는 것’은 역사 속 진정한 참모를 통해 현재의 답을 찾는다. 책은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도전부터 실록에 무수히 등장하는 송시열에 이르기까지 40명의 참모가 소개된다.

먼저 ‘새 왕조를 설계’한 참모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건국의 최대 공로자였지만 신권 중심주의를 주장하다 제거되는 정도전, 이방원을 보위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륜, 세종과 함께 태평의 시대를 이끌었던 성삼문, 그리고 성삼문과는 엇갈린 행보로 변절자로 남았지만 유능한 관료였던 신숙주 등이 소개된다. 저자는



정도전·한명회·유성룡·송시열·정약용 등 40명 소개  
명참모들 덕목은 도덕성·청렴성·소통 리더십...  
역사 속 진정한 참모 통해 현재의 답 찾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충효당. 유성룡의 종택으로 사후에 후손과 문하생들이 유성룡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세종이 성군이 된 것은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참모형 인재를 적절히 발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에서는 조선 최고 문장가이자 관중과 포숙의 관계였던 서거정과 강희맹을 참모이자 문장가 관점에서 살폈다. 저자는 성종은 서거정, 성현, 김중직, 김일손 등에게 고르게 역할을 맡겨 15세기 제도와 문물 정비를 완성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권력을 통해 수양대군의

참모가 되고 세조의 신임 속에 승승장구했던 한명회의 권력투쟁과 쓸쓸한 말년도 들여다본다.

왕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참모도 있었다. ‘폭군의 실정에 흔들리다’에서는 연산군의 마음을 흔든 장녹수, 폭정에 기름을 부은 간신 임사홍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반면 중종의 절대적 총애를 받다가 ‘주초지왕’(走肖之王: 조씨가 왕이 된다)의 역모 혐의를 받고 죽음에 이른 조광조, 호남 사

림의 자존심 김인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 양대산맥으로 활약한 조식도 다뤘다.

‘임진왜란, 조선의 위기를 겪다’에서는 ‘십만양병설’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선조시대 최고 참모 이이를 살핀다. 더불어 선조와 애종의 관계였던 가사문학의 뛰어난 문장가 정철, 7년에 걸친 임란 과정을 ‘정비록’으로 남긴 유성룡을 통해 난세의 참모들의 모습을 고찰한다.

‘광해군의 그림자 속 참모들’도 흥미롭다. 당리당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을 유지했던 뛰어난 외교 참모 이덕형, 급진적 개혁을 주창하다 죽임을 당한 비운의 천재 허균, 상공의 신봉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김계시도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숙종시대 정치 공작의 달인 김석주, 정치와 사상의 중심이었지만 숙종에게 사약을 받은 송시열,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정조의 참모였던 실학자 정약용도 다룬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왕조 시대가 끝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가 도래했지만, 반복이라는 역사의 속성 앞에 조선시대 명참모들이 갖추었던 덕목들은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 목표 설정의 적합성, 적절한 정책 추진, 여론과 언론 존중, 도덕성과 청렴성,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등이다.”

〈매일경제신문사-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 왕은 안녕하시다(전2권)

성석제 지음

입담과 해학, 절대 고수의 반열에 오른 이야기꾼 성석제. 지난 1995년 ‘문학동네’에 단편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며 등단해 자신만의 고유한 문학세계를 일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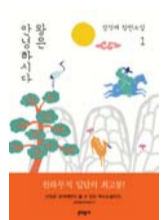
성 작가가 이번에 펴낸 ‘왕은 안녕하시다’는 ‘근엄한 역사를 뒤집는 이야기 환판’이다. ‘투명인간’ 이후 5년 만에 발간한 장편소설이자 원고지 3000 매에 달하는 본격 역사소설로, 문학동네 네이비 카페에서 전반부를 연재한 뒤 오랜 시간을 들여 후반부를 쓰고 전체를 대폭 개작해 완성했다.

소설은 조선 숙종 시대를 배경으로 우연히 왕과 의형제를 맺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 왕을 지키기 위해 중립무진하는 모험담이 특유의 흥겹고 유장한 필치로 이어진다. 목격한 역사소설과 날렵한 무협소설을 넘나드는 분방한 서사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주인공 성형은 한양에서 제일가는 기생방 주인인 할머니 덕에 먹고 먹는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비범한 풍모의 꼬마를 만나 그와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 알고 보니 꼬마는 장차 대위를 이을 세자(숙종)였다. 얼마 뒤 그가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성형은 졸지에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머물며 최측근이 된다.

어린 왕이 남인과 서인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로운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성형은 궁궐 안팎을 오가며 각계각층을 만나고 여러 인물들을 판별하게 된다. 성형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결정적인 국면을 목도하거나 은밀히 개입하기도 한다.

권희철 평론가는 “‘왕은 안녕하시다’는 흥미진진한 역사소설이 된다. 이런 식의 역사소설을 그가 아니면 누가 쓸 수 있을까”라고 평한다. 〈문학동네-각권 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다에서 본 역사

하네다 마사시 역음, 조영한·정순일 옮김

오늘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바다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하네다 마사시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가 엮은 ‘바다에서 본 역사’는 동아시아 700년의 역사를 바다를 매개로 풀어낸다.

책은 동아시아 바다를 지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사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육지에 기반을 둔 국가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관점에 머물기 십사이고 고개를 든다고 해도 몇몇 이웃만 눈에 들어온다.

책은 28명의 역사가가 완성한 동아시아의 마스터피스다. 저자들은 각자 독립된 글을 쓰는 대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글을 썼다. 약 3년간에 걸친 모임 끝에 이들은 각자가 전공하는 한국사와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회화사, 문학사, 문화사, 고고학 등을 아우르는 통섭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인도양, 유럽까지 다룬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외교, 문화, 사상까지 망라하는 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른바 집단지성의 발휘된 것이다.

책의 저자들은 ‘열려 있는 바다’, ‘경험하는 바다’, ‘공생하는 바다’를 주제로 동아시아 바다를 조명한다. ‘개방’에서는 세계 제국 몽골이 바닷길을 잇고 동서 교류를 촉진한 역사를, ‘경합’에서는 유럽세력이 등장해 동아시아 바다가 지구 전역과 연결된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 ‘공생’에서는 육지의 정치권력 강화와 함께 해양 세력들이 자립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민음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김태형 지음

“극단주의자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사건, 잇을 만하면 들려오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테러 사건 등. 그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을까? 이런 극단적인 성향은 바뀔 수 있긴 한 걸까?

‘올바른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분석하는 작업에 힘쓰고 있는 김태형씨가 극단적인 성향을 분석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를 펴냈다.

뉴스 속 사람들이 아닌 SNS나 메신저 안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특정 성향을 드러낸 기사나 글에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일부는 진위 여부가 확인 안된 가짜 뉴스도 카톡으로 공유된 글이면 무조건 믿는다. 게다가 네트워크 안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여 의견을 나누면서 그 치우침을 더 굳건히 다지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계층 갈등과 극단주의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흔히 ‘극단’ 하면 중용의 반대 의미인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느낌을 떠올리고, ‘극단주의자’도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극도로 치닫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심리학자인 지은이는 극단주의를 심리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며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 후 정의 내린다. 이 특징들은 극단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을유문화사-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